



Colors, Future!

いろいろって、未来。

川崎市

가와사키시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 뉴스레터 No. 60

편집·발행 : 시민문화국 인권·남녀공동참여실 2017년 8월 6일 발행
(일본어) <http://www.city.kawasaki.jp/shisei/category/60-7-2-0-0-0-0-0-0-0.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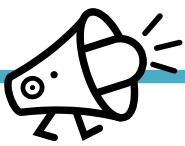
(간단한 일본어) <http://www.city.kawasaki.jp/250/page/0000042748.html>

2016년도의 활동 내용을 시장님·시의회에 보고



4월 12일(수), 제 11기 대표자회의의 헤이 자취 위원장, 겐센구아 에드워드 무원비 부위원장이 후쿠다 노리히코 시장님께 2016년도의 연차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시장님 보고에서는 연차보고서에 의거하여 2016년도의 대표자회의의 심의 테마와 회의에서 나온 의견, 오픈회의 등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했습니다. 후쿠다 시장님은 「가와사키에는 외국인이 점점 증가하는 것과 함께 출신국·지역도 다양하며 더욱 풍요로워지고 있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가와사키는 제 1, 제 2의

고향이 되도록 함께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 싶다. 행정기관의 정보만으로는 제대로 전달이 안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 외국인 여러분에게도 각각의 언어로 정보 발신이나 확산을 해 나가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가 전달될 것으로 생각되니 같이 노력해 나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목)에는 헤이 자취 위원장과 겐센구아 에드워드 무원비 부위원장이 시의회문교위원회에 초대되어 2016년도의 활동내용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



2017년도의 대표자회의 일정

장소 : 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 (도큐토요코센·메구로센 「모토수미요시역」에서 도보 약 10분)

시간 :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약도 : <http://www.kian.or.jp/accessmap.shtml>

- 제2회 제2일 2017년 9월 3일 (일) ●제3회 제1일 2017년 10월 15일 (일)
- 제3회 제2일 2017년 12월 10일 (일) ●제4회 제1일 2018년 1월 21일 (일)
- 제4회 제2일 2018년 2월 18일 (일)

☆☆☆

회의는 누구라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자회의를 꼭 보러 오세요!

제12기 대표자 모집 안내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는 가와사키시가 외국인시민의 시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1996 년에 조례로 설치한 회의입니다. 외국인시민이 평소에 생활하면서 느낀 점이나 안고 있는 문제 등에 대해서 본인들이 테마를 정하여 조사·심의해서 그 결과를 시장님께 제언하고 있습니다.

■임기 : 2018 년 4 월 1 일부터 2020 년 3 월 31 일까지 (2 년간)

■모집인원 : 26 명

■활동 : 회의는 년 8~9 회, 일요일 오후에 개최됩니다. 회의 이외에 필드워크를 하거나 이벤트에 참가할 때도 있습니다.

■응모자격 (①②③에 모두 해당되는 분) :

①일본국적을 가지지 않은 분

②2018 년 4 월 1 일 시점에서 만 18 세 이상인 분

③2018 년 4 월 1 일 시점에서 1 년이상 가와사키시의 주민기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분

■응모방법 : 2017 년 11 월 21 일(화)까지 응모용지를 우송해 주십시오. (당일소인유효)

* 응모용지는 9 월부터 구역소, 시민관, 도서관, 국제교류센터 등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http://www.city.kawasaki.jp/250/page/0000069405.html> 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문의처>

가와사키시 시민문화국 인권·남녀공동참여실 외국인시민시책담당
TEL 044-200-2359 FAX 044-200-3914 E-mail 25gaikok@city.kawasaki.jp

오픈회의에 관한 알림

오픈회의는 많은 분들에게 대표자회의를 알리는 것과 함께 여러 참가자분들로부터 의견이나 질문을 받기 위한 회의입니다. 누구라도 참가 가능하며, 일본어가 어려운 분은 대표자가 통역을 도와드립니다.

■ 일시 : 2017년 11월 19일 (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예정)

■ 장소 : 가와사키시국제교류센터

★ 프로그램은 현재 기획 중이지만, 되도록 많은 분들과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회의를 만들고자 합니다.

☆ 회의 종료 후, 교류파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 대표자회의 응모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번 기회에 꼭 참가해 보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11기의 심의경과 보고

<정보·사회교육부회>

정보·사회교육부회에서는 지금까지 「정보」, 「어른 대상의 일본어학습」, 「외국인 대상의 오리엔테이션 코스」라는 테마에 대해서 심의해 왔습니다. 첫 번째 테마의 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시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외국인시민에게 전달할 수 있을 지를 의논하고 정보의 전개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의 일본어학습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는 일본어학습 코스에 대해서 알아 보고, 그리고 국제교류협회의 담당자에게도 참고인으로서 회의에 초대해 이야기를 듣고, 시의 일본어학습 코스의 PR 활동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세 번째의 테마에 대해서는 가와사키시에 관한 것과 일본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전입자 상대로 매년 몇 번 정도로 오리엔테이션 코스를 개최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심의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의 의견이나 제안을 정리해서 가와사키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좋은 제언이 되도록 마무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부회장 피터슨 케리

<지역생활부회>

지역생활부회에서는 지금까지 범위를 줄여서 3개의 심의 테마 중에서 4월의 심의까지로「육아(임신·출산·영유아기)」와「의료·병원」에 대해서 각각 현재 상황을 확인해 나가면서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우선, 육아에 대해서 보육원의 신청서류나 영유아의 정기검진「알림」의 다언어화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가와사키국제교류재단이 작성한 「외국인시민을 위한 육아 차트」를 참고로 가와사키시에서도 임신에서 초등학교 입학까지 여러 가지 절차를 알기 쉽게 안내하는 자료를 원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의료·병원에 대해서는 의료통역 파견제도나 다언어문진표의 활용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또 다른 테마의 하나인「방재·재해」도 포함해서 제언을 위해 더욱 더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부회장 김순옥



「풍진」대책의 소개

임신 중에 「풍진」에 걸리면 아기가 눈, 귀, 심장 등에 병을 가지고 태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선천성 풍진 증후군). 가와사키시에서는 이와 같은 선천성(태어날 때부터)의 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풍진」대책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1) 풍진 항체검사(비용: 무료)

대상자: 가와사키 시민으로 지금까지 가와사키시의 풍진 대책사업을 이용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 (1) 임신을 희망하는 여성 (2) 임신을 희망하는 여성의 파트너 (3) 임신부의 파트너

(2) 예방접종(비용: 3, 200엔)

대상자: (1)의 검사를 받은 사람으로 예방접종이 필요한 사람



● 실시기간: 2018년3월31일까지

※예방접종이 3월31일까지 끝낼 수 있도록 반드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검사를 받아 주십시오.

● 신청방법: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원에서 직접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할 때는 가와사키 시민이라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하십시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나 기타 상세한 정보▶

<http://www.city.kawasaki.jp/350/page/0000064983.html>

(요 겐소)

세계의 추천 스포트

우크라이나 「사랑의 터널」

처음에 일본에 와서 「우크라이나가 어디지?」라고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정세를 둘러싸고 문제가 많은 이유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알고 있는 사람도 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다지 잘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을까요?

도대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우크라이나는 동유럽에 위치하여, 서쪽은 헝가리나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모ルド바가 있고, 동쪽은 러시아연방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일본에서 우크라이나까지는 직항은 없고 경유도 포함하면 비행기로 16시간 정도 걸립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세계는 사랑으로 구원된다」고 말하며 애정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민족입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의 유명한 스포트로써 「사랑의 터널 (The Tunnel of Love)」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리우네주 (Rivne) 에 있는 신록에 둘러싸인 로맨틱한 터널입니다. 터널 길이는 약 3 Km 이고, 하루에 2 ~ 3 회, 목재를 운반하는 열차가 지나갑니다. 이 사랑의 터널을 빠져 나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어서 젊은 남녀나 열애 중인 커플에게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상대가 없는 독신도 터널을 빠져 나갈 수 있다면 반드시 상대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언제나 아름다운 마법에 걸릴 것 같은 터널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방문해 보세요.



(바르도코바 옥사나)

<문의>

가와사키시 시민문화국 인권・남녀공동참여실

〒 210-0007 가와사키시 가와사키구 에키마에 혼쵸 11-2 가와사키후론티아빌딩 9 층
Tel : 044-200-2359 Fax : 044-200-3914 E-mail : 25gaikok@city.kawasaki.jp
대표자회이나 뉴스레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종이는 현종이 펄프 배합률 70%의 재생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